

대구 '국제한의학박람회' .. 5월 8일부터 중국 일본 대만 한방관련업체도 한자리에

대구에서 대규모 '국제한의학박람회'가 열린다.

대구는 21세기형 지식 기반 산업인 한의약의 발전을 모색하고 홍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오는 5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국제한의학박람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내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100개 업체 200개 부스 규모로 치러지며 외국인(5개국) 300명을 포함해 모두 5만여 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주요 전시품목은 △한방의 료기기장비 △건강보조기, 건강식품 △관련 도서영상 소모품 △벤처기술, 한의약 기술정보 등이며 국내 한방 병의원과 중국, 일본, 대만 한방 관련 업체를 홍보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

부대행사로 한의학과로 유명한 경산대가 주최하는 주제관, 한의약 유통관 행사를 비롯해 무료진료, 체질감별, 기공체조, 건강강좌가 있다.

시는 특히 박람회 기간 중에 2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대구약령시 축제'를 중구 약전골목 일원에서 동시에 개최해 한의약 도시로서 대구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약령시축제는 고유제, 한약재썰기대회, 약초꽃동산 조성, 한방요리 개발 전시회, 한방떡 맛자랑 체험 등 25개의 다양한 한의약 관련 행사로 꾸며진다.

시는 참가객의 편의를 위해 행사기간 중 한의학 박람회장과 약령시축제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

행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350년 전통의 대구약령시 홍보와 활성화를 통한 한약 상인들의 소득증대.관광산업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다양한 한방 관련 상품의 개발, 판매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인삼 국제식품규격 제정 초안제출 인삼규격화 진행을 위한 후속조치 일환

농림부는 인삼에 대한 국제식품규격(codex) 제정을 위해 '인삼제품 국제식품규격 초안'을 이번주중 이탈리아 소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규격초안 제출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지난해 9월 인삼에 대해 규격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인삼의 국제식품규격 제정을 위한 2단계 과정이다. 농림부가 마련한 인삼제품 국제식품규격 초안은 인삼제품의 범위와 정의, 품질기준 및 필수 구성인자, 위생, 표시사

항 등 인삼의 국제식품규격 제정을 위한 제반요건을 담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사무국은 미국·캐나다·중국 등 관련국의 의견조치를 거쳐 오는 9월에 열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가공과채류 분과위원회에 상정,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논의과정을 거친다.

올 약령시 축제 5월 7~12일 열려 약썰기대회 약초꽃동산 조성등 행사 다양

2002년 대구약령시 축제가 5월7일부터 12일까지 약전골목·한약재 도매시장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본, 대만 한방관련 학회·업계가 참가하는 제2회 대구국제한의학박람회도 약령시 축제 기간에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약령시 축제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동양 의학관련 상품·약제가 총출동하는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내용은 고유제, 전승기계, 약썰기대회, 약썰기 체험, 약초꽃동산 조성 등 25종의 다양한 한의약관련 행사로 마련된다.

대구는 약령시 축제행

토종 홍화씨 무료보급

경북 칠곡토종홍화씨농장(대표 배문열)은 골다공증과 관절염 등에 효능을 발휘하는 한약재로 알려져 있는 토종 홍화씨를 무료로 보급한다.

전화(053-355-7241)

가시 없는 음나무 돌연변이체 발견 대량재배시 농가소득 증대 기대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지난 96년부터 생장과 수형이 우량하고 양질의 새순 생산이 가능한 음나무 200그루를 선발, 증식하는 과정에서 최근 가시가 전혀 없는 음나무 돌연변이체를 발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돌연변이체는 가시가 없기 때문에 재배가 편리하고 인건비가 적게 들어 향후 대량 재배시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임업연구원은 조직배양을 통해 이 돌연변이체를 대량 증식, 재배농가에 보급하는 동시에 발아율(기존 음나무의 경우 7%)을 7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교육할 방침이다.

정현관 연구관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일명 '돈 나무'라고 불리는 음나무 천연분포지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돌연변이체의 유전적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량 증식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나무는 이른 봄에 입맛을 돋워주는 새순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루틴(Rutin)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한약재로도 널리 활용되며 최고급 목재로도 인기가 좋다.

알려지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옷 표복 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부적합' 생각 한약재로 둔갑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달 7일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생강을 한약재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이모(34)씨를 구속하고 통관대행업자 김모(4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3일 수입한 중국산 생강 23.3t(1억원 상당)에서 기준치의 3배를 넘는 이산화황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자 한약재 전문 통관대행업자 김씨에게 부탁해 한약재로 생강을 통관시킨 뒤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수입한 약재의 통관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수출입협회의 검사기준과 식약청의 검사기준이 다른 점에 착안, 폐기시켜야 할 생강을 통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약재 검사기관서 제외 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의 공사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법인 해산되어 동 검사기관지정서를 자진 반납해 온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녹용·우황·침향의 검사업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8개 기관에서 검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의약품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관능검사 업무의 신뢰성·객

수입한약재 검사 기관의 확대에 의해 검사 기간단축은 물론, 민원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식약청은 단순 검사 업무보다 시험법 개발 등 전문성 향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입한약재 검사

수입녹용·우황등 검사업무 민간기관 확대 식약청, '관리규정 개정' ... 7일부터 시행

관능 확보를 위해 한약재 관능검사 전문가 32명을 중앙약심 한약규격 소분과 위원으로 위촉해 'Pool' 제로 운영토록 했으며, 민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8개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정취소 등의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기관은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경동출장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경기의약연구원(성균관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등이다.